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

■ 자료제공/ 건강한 이웃 편집부

한 약제제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이 있다. 두 약은 모양 제형 용도도 비슷하다. 그러나 두 약은 약재구성과 인체작용이 다르므로 약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질과 용도에 맞추어 선택해야 한다.

대입수능시험이나 발표회 등을 앞두고 흔히들 우황청심원을 찾는다. 이 약은 우황 사향 등 전체 30여 가지 약물로 구성된 심장열을 끄는(淸心) 구급약이다. 원방, 반방, 경험방(변방)으로 분류된다. 원방은 우황과 사향을 각각 45mg과 38mg(동의보감의 처방), 반방은 원방의 반량, 변방은 우황 14mg과 사향 5mg이 들어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응급약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져 기도가 막힌 경우에 억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외 지나친 스트레스에 의한 고혈압, 각종 시험이나 긴장을 동반하는 정신불안증,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인사불성, 호흡곤란, 급·만성 경풍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심박동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어 진정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혈압환자나 심장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복용할 경우는 자신의 체질을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 커다란 알약과 물약이 나오고 있다.

천왕보심단은 진액과 피를 만들어주고 심장의 쓸

모없는 열을 꺼주는 생지황을 주약으로 한 허약한 심장을 살려내는(補心) 심장약이다. 모두 13가지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약재들은 쓸모없는 열을 끄고 진액을 보태고 모자라는 피를 만들어 심장의 기운을 살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굵금없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심장의 진액과 피가 소모돼 음양의 조화가 깨어져 생기는 고혈압 발작성빈맥 심장신경증 부정맥 심흉통 같은 심장질환이나 초조 불안 우울감 불면증 건망증 신경쇠약 등의 정신 불안증과 손·발바닥의 화끈거림, 신체 열감, 식은 땀 등 자율신경 실조증, 입마름, 구내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활용한다.



출혈 또는 기운의 소모가 많아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머리는 총명하지만 주의가 산만한 경우 등에 특히 천왕보심단은 효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평소에 잘 놀라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 심장이 허약한 수험생은 우황청심원보다 오히려 천왕보심단이 진정효과와 집중력 향상이라는 부가 기능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재의 구성으로 보아 평소 자주 설사를 하는 체질은 설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천왕보심단은 크고 작은 알약 물약 외에도 캡슐약 파립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나오고 있어 환자의 편의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